

美 대선 앞두고 AI 딥페이크 경고등 법적규제 강화·대중인식 개선 필요

AI 가짜뉴스 확산, 유권자 혼란 초래
바이든, AI 선거운동 금지 행정명령
인텔, 정맥 변화감지 탐지 기술개발
해야, AI 음성 사기 탐지 기술 출시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위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유포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 모두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딥페이크는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신체 일부를 조작한 콘텐츠를 뜻한다.

24일(메트로경제)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대선 후보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직전,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로보콜'을 받았다. 이 로보콜은 '프라이머리에서 투표하면 11월(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해당 전화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82억원(약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크레이머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음성 전화 메시지를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선거가 과열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AI로 생성한 허위 이미지를 여러 차례 게시하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시카고 '공산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나 유명 가수 테일러



빅테크 기업들은 유권자들이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꼬리표)을 부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 이미지는 메타가 자사의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AI 생성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한 예시. /메타

스위프트와 그의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담은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미국 정부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법적 제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를 담은 법안을 2건 발의했으나 아직 가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차단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구글과 메타, 오픈AI를 포함한 20개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딥페이크를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꼬리표)을 부착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조작된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텔은 '페이크캐처'라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

속 얼굴의 미세한 정맥 변화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감지해 실제 인물과 조작된 인물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하야'는 AI로 생성된 음성을 탐지할 수 있는 '하야 딥페이크 보이스 디텍터'를 출시했다. 크롬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AI 음성 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야 관계자는 "제3자 테스트 결과, 확장 프로그램은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AI로 생성된 음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합성 모델로 생성된 음성도 출시하자마자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허위·조작 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IT 업계 전문가는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강력한 법적 규제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허위 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퍼펙트윈 ERP 에디션', 日 시장 진출

LG CNS 日 IT기업, 파트너십 강화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재팬 IT 워크어업'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퍼펙트윈 전사적자원관리(ERP) 에디션'을 소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퍼펙트윈 ERP 에디션은 SAP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자동 테스트 솔루션이다.

LG CNS는 전시회 참가 외에도 일본 시장 내 퍼펙트윈 라인업 공급 확대를 위해 일본 IT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를 위해 지난 16일 LG CNS는 일본 IT기업 바르테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LG CNS는 바르테스의 현지 네트워크와 사업 노하우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퍼펙트윈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바르테스는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는 IT기업이다. LG CNS는 바르테스 외에도 씨이씨커스터머서비스, 와이드텍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일본 현지 IT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일본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MZ세대 생활 밀착 포인트 제휴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 슈퍼앱 도약 선포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슈퍼앱 도약을 선포하며 여행·생활·편의·모빌리티·교육 등 산업별 대표 브랜드와 제휴를 추진, 다양한 혜택을 선보였다. 특히 MZ세대 회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지속 발굴해 메가MGC커피,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OPIc 등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MZ세대 유입 확대를 위해 멤버십 서비스 CJ원(ON E) 포인트 제휴처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CJ원 회원 3000만명 중 60%가 MZ세대로,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건수는 전체의 76%, 활용 포인트는 73%를 차지한다. MZ세대 회원들이 선호하는 CJ브랜드로는 CJ올리브영, CGV, 온스타일, 푸레쥬르 등으로 CJ원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장 활발하다.

아울러 문화생활에도 관심이 많은 MZ 회원들을 위해 걸쳐 라이프 플랫폼 '원픽컬처'를 활용해 전시·공연 무료 초대 및 할인 이벤트를 비롯 영화 등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을 제공해왔다. /김서현 기자

삼성, '겔AI'로 글로벌 언어 장벽 없앤다

네덜란드어 등 통역 언어 20개 확대



삼성전자가 갤럭시 인공지능(AI) 지원 언어를 20개로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16개 언어에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 등 4개 언어가 새롭게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갤럭시 AI 지원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이다.

갤럭시 AI 지원 제품 사용자는 이달 말부터 설정 앱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20개 언어를 구사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AI가 제공하는 언어 기능

'갤럭시 AI'의 지원 언어에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가 새롭게 추가돼 총 20개 언어로 확대된다. /삼성전자

은 ▲실시간 통화 통역 ▲대면 대화 내용을 즉시 번역해주는 '텍스트 통역' ▲효율적인채팅을 돕는 '채팅 어시스트' ▲노트 내용의 번역과 정리를 지원하는 '노트 어시스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바로 번역하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웹페이지를 번역하는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항공기 도입 확대... 승무원 대규모 채용 전망

기단 확장... 인력 총원 필요성 확대
대한항공, 외국인 승무원 채용 지속
제주항공, 지상 정비 인력 수요 증가

항공업계가 항공기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인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객 수요에 의해 항공기 도입이 늘고, 기체 도입이 늘어나어서다.

24일 항공정보시스템 업체별항공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만5661명이던 종사자 수가 2023년 2만651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항공업계가 회복하고 있어서다.

항공업계는 2024년 상반기 이미 대규모 채용에 나선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100명·경력직 기장 및 부기장 60명 ▲에어부산 승무원 및 정비사 80명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 46명 등을 채용했다.

하반기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밝힌

항공사는 없지만, 기단 확장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도 항공업계 채용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B737-8 항공기를 2025년 7대, 2026년 5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프레미아도 B787-9 항공기 4대를 2025년 3분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LCC)업계 1위 제주항공은 기체 도입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B737-8 항공기 50대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부터 외항사 등 타 항공사의 지상 조업 업무도 맡고 있어 정비 인력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각 국가의 문화와 승객 니즈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 승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

다. 대한항공(FSC)인 대한항공도 채용에 나서는 만큼 항공업계 채용 시장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영업을 중단했던 ▲플라이강원(파라타항공) ▲하이에어 등이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가 인수해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업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해 왔다. 1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울산공항을 모기지로 두고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가운데, 오는 2025년 재취항을 목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박대성 기자 iunm@

물류업계 첫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획득

CJ대한통운 곤지암 체험관 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의 안전체험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물류업계 최초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을 받았다. 2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은 체험형 교육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교육 프로그램, 강사, 교육장 시설 및 장비 등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매 1년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